

피부질환의 形象醫學的 치험사례 II

강경화 · 조성태¹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한방바이오연구센터, 1: 아카데미 한의원

Clinical Cases of Skin Diseases Treated with Hyungsang Medicine II

Kyung Hwa Kang, Sung Tae Cho¹,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Academy Oriental Clinic*

The writers present this additional paper to supplement the treatise (Clinical Cases of Skin Diseases treated with Hyungsang Medicine) issued at Hyungsang Medicine Conference in 2001. New other cases have been added in this paper because we didn't deal with sufficient cases in the former treatise and there is also a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The skin is the part that is exposed to the outer environment. Consequently, it is not only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outside, but also shows internal abnormalities. Therefore, i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when diagnosing a skin disease, whether the disease is caused by the outside influence, or it reveals internal abnormalities, or it shows both outer and internal abnormalities. For skin disease diagnoses, there are still limits in finding out the cause of a disease only by means of feeling pulses and analysing symptoms. In order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and for more accurate and appropriate treatments, Hyungsang diagnosis should be fully understood and well recognized. Accordingly, for skin disease treatment especially, along with all the other disease treatments, we should take the four combined factors (configuration, color, pulse and symptoms) into consideration to bring out the meri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l medicine and be able to prepare for any cases.

Key words : Skin Diseases, Hyungsang Medicine, Four combined factors(四診)

서 론

피부는 皮肉脈筋骨의 조직으로 보았을 때 제일 밖에 있어 외부의 환경과 접해 있고, 十二經脈이 분포하여 十二經脈을 통해 안으로 五臟六腑와 연계되었으며 피부호흡은 내부의 상태와 외부의 환경 간의 조화를 꾀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질환에 비해서 내적여건과 외적여건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 특히 문명의 발달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식용에 쓰는 동식물의 사육과 재배가 자연의 법도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전자장비와 인체에서 정신을 지나치게 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피부질환은 원인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치료기간도 일반적으로 긴 편이고, 밖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매우 인내와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질환에 속한다.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4/07/30 · 수정 : 2004/08/30 · 채택 : 2004/09/22

외적요인은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에 상응해가는 과정에서 邪氣를 排除하지 못하였을 때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내적인 요인은 음식이나 七情, 臟腑의 热, 그리고 인체기능의 부조화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구조와 기능적인 특징으로 인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을 진찰하고 치료에 임함에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방법이 피부질환에 대한 인식과 치료법을 구축해가는 중요한 이론이었으며 많은 효과를 보아왔다.

그런데 피부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기준의 의서에서는 맥과 증상 병리에만 의존하는 면이 강하였다고 본다. 물론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맥과 증상 그리고 병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맥과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생김새나 피부의 색이 다르다면 치료법을 달리해야하는 것이 한의학의 불문율이다. 바로 이런 면을 강조하는 것이 形象醫學이다.

形象醫學이 추구하는 것은 단편적인 對症療法을 탈피하고 병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形象醫學

은 脈과 증상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形象과 色脈 그리고 증상을合一하여 제일 적합한 처방으로 귀납시킨다. 다양한 피부질환을 이와 같은 形象醫學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면 종래의 치료방법보다 진일보된 견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피부질환을 재해석하고 분류하려는 일환으로 필자는 2001년 形象醫學 학술대회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으나 사례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전의 논문[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¹⁾에 追加補充할 수 있는 임상사례를 모아 발표하고자 한다.

임상사례 및 고찰

1. 精氣神血에서 오는 피부질환

1) 임상사례 1 - 장 ○○, 여자 40세

(1) 초진일 : 2001년 4월 4일

(2) 形象 : 氣科, 骨大

(3) 脈 80 / 80

(4) 증상 : 痔疾, 大便을 볼 때마다 出血이 있다. 화나면 가슴과 등이 아프면서 여드름 같은 것이 생겼다 없어졌다한다. 泄瀉를 자주 한다. 숟가락을 놓으면 大便을 보고 또 보아도 시원치 않다. 배가 고프면 못 참고 속이 비면 쓰리다.

(5) 처방 : 加味香蘇散(氣痔)²⁾

(6) 고찰 : 氣科의 病理의 核心은 氣의 鬱滯³⁾⁴⁾이다. 氣의 鬱滯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나타난다⁵⁾. 이 환자의 경우도 여자이고 氣科의 形態로 생겨 잘 鬱滯되는 체질이었다. 그리고 증상으로도 화가 나면 가슴과 등으로 여드름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氣鬱을 의미한다. 痔疾도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지만 이 환자가 氣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긴 대로 痘이 온다는 차원에서 氣鬱로 인해 痔疾이 온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氣鬱을 풀어주면서 痔疾을 치료하는 加味香蘇散을 투여하였는데 大便을 볼 때마다 出血되는 것이 사라지고 가슴과 등으로 여드름 같은 것이 생기던 것이 없어졌다.

2) 임상사례 2 - 나 ○○, 남자 4세

(1) 초진일 : 2001년 8월 25일

(2) 증상 : 100일 때부터 두드러기가 시작 겨울에는 손발이 통통 부어, 계란이나 우유를 먹으면 심하게 나와, 요즘에는 다리와 엉덩이 부위까지 두드러기 발생한다. 친물에 오래 있으면 두드러기가 발생한다. 배가 자주 아프다. 땀이 많다.

(3) 처방 : 黃芪建中湯

(4) 고찰 : 두드러기를 주로 呼訴하는 환자로 겨울에는 손발이 통통 붓는다는 것이나 친물에 오래 있으면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아 寒과 관련이 있다. 小兒의 腹痛은 虛弱이나 食積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食積일 경우에는 大便前에 아프다 大便을 보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特徵이나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大便과는 관계없이 수시로 아프다고 하여 虚弱으로

인한 腹痛으로 보았다. 또 腹痛은 热證으로 인한 경우보다 寒證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배꼽을 중심으로 한 배는 따뜻해야 律動運動이 잘 일어나고 그래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배꼽을 太陽叢⁶⁾이라고 한다. 만약 배가 차가워 진다면 律動運動이 잘 안되게 되고 그로 인해 腹痛과 여러 가지 이상증세를 나타나게 된다. 小建中湯은 본래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나온 처방이고 桂枝湯의 變方으로 太陽病의 酒汗不足으로 인하여 發汗을 시키지 못할 症⁷⁾을 치료하는 처방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허약과 寒으로 인한 腹痛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여기게 되었다. 여기에 氣虛 自汗을 兼했을 때 黃芪建中湯⁸⁾을 쓴다고 하였다. 날씨가 춥거나 친물에 있으면 두드러기가 심해지고 腹痛이 자주 있으며 땀이 많다고 하여 內傷發斑⁹⁾에 쓰는 藥 중 外感氣虛自汗의 神劑¹⁰⁾로 알려진 黃芪建中湯을 투여하였는데 환자는 10貼을 복용하고 나서 배아픈 것이 거의 없어지고 땀이 줄며 두드러기 나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2. 痰飲으로 인한 피부질환

1) 임상사례 3 - 문 ○○, 여자 50세

(1) 초진일 : 1996년 6월 19일

(2) 形象 : 氣科, 觀骨大, 骨大, 눈가에 주름, 새가슴, 剛

(3) 脈 60 / 60

(4) 증상 : 목 측면 어깨 缺盆부위로 帶狀庖疹이 생겨 따끔따끔하고 가려우며 몽우리가 생긴다. 쓰라리고 아프다. 腰痛 하리에 힘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못 닫고 커튼을 못 친다.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찬다. 저녁으로 頭痛, 잘 어지럽다. 痰飲의 形象과 증상.

(5) 처방 : 二陳湯¹¹⁾ + 桔梗 · 柴胡 · 連翹 · 酒炒大黃¹²⁾ 各一錢

(6) 고찰 : 精氣神血의 모순은 夢 · 聲音 · 言語 · 津液 · 痰飲으로 나타난다.¹³⁾ 上記의 환자는 1996년 목의 옆으로 몽우리가 생겼다고 하며 처음 來院하였던 환자로 당시에는 눈 밑이 거무스름하였다. 이는 痰飲의 形象이고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운 痰飲의 증상이 뚜렷하여 濕痰이 皮裏膜外를 流注하여 結核을 이룬 것¹⁴⁾으로 보고 二陳湯에 桔梗 柴胡 連翹 酒炒大黃을 加하여 투여하였다. 藥을 복용한 이후로 그 동안 괜찮았었는데 다시 再發하여 2001년 6월 12일 다시 來院하였기에 그대로 처방을 해주었다.

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p. 149

7) 對譯東醫寶鑑, p. 1058

太陽病, 脈浮緊、身疼痛，宜以汗解之，假令尺脉遲者，不可發汗，何以知之，以榮血不足，血少故也，小建中湯(方見虛勞)加黃芪服之，尺脉有力乃服汗藥(臥經)

8) 對譯東醫寶鑑, p. 1188

9) 對譯東醫寶鑑, p. 731

10) 對譯東醫寶鑑, p. 260

仲景桂枝湯，治外感風邪自汗之聖藥也。黃芪健中湯，治外感氣虛自汗之神劑也，補中益氣湯，治內傷氣虛自汗之妙方也。(東垣)

11) 對譯東醫寶鑑, p. 290

12) 對譯東醫寶鑑, p. 1483

結核在頸項，二陳湯(方見痰門)，加酒炒大黃 · 桔梗 · 柴胡 · 連翹 · 煎服(丹心)

13) 芝山先生臨床學特講VI, p. 74

14) 對譯東醫寶鑑, p. 1483

結核在一身，如腫毒者，在皮裏膜外，多是濕痰流注，作核不散，問其平日好食何物，吐下後，用藥散核(丹心)

1) 大韓形象醫學會誌 vol. 2 No. 1,

2) 對譯東醫寶鑑, p. 835

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p. 51

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p. 281

5) 對譯東醫寶鑑, p. 173

2) 임상사례 4 - 허 ○○, 남자 6세

(1) 초진일 : 96년 2월 2일

(2) 形象 : 눈 밑이 검다, 鼻孔이 드러남.

(3) 脈 100 / 104

(4) 증상 : 肘, 膝以下로 불이 들어 있는 듯한, 벌레가 들어 있는 듯한 무사마귀가 많이 생겼다. 배가 자주 아프다. 물을 많이 먹는다.

(5) 처방 : 茄桂朮甘湯¹⁵⁾

(6) 고찰 : 무사마귀는 飲傷으로 인한 水毒性¹⁶⁾¹⁷⁾¹⁸⁾ 疾患이다. 그래서 그 形態도 불방울 形態를 이루고 있다. 上記의 환자의 경우도 무릎과 팔꿈치 이하로 무사마귀가 많이 생겨 병원에서 뜯어내다가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부모가 韓方으로 치료할 方法이 없나하여 來院하게 된 경우이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고 形態가 전형적으로 무사마귀의 形態를 띠었는데 눈 밑이 검은 것을 보고 痰飲으로 인한 水毒性으로 보고 茄桂朮甘湯을 투여하여 깨끗이 없어졌다.

3) 임상사례 5 - 손 ○○, 여자 9세

(1) 초진일 : 2000年 7月 20日

(2) 形象 : 陽明形, 눈 밑이 거무스름하다.

(3) 증상 : 重症亂視. 怯이 많다. 고등어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발생한다. 맘을 늦게 시작했다. 공부도 늦은 편이다. 처음에 걸을 때 까치발을 세우고 걸었다. 몸 양쪽으로 붉게 두드러기가 생기고 등 배 다리에 무사마귀가 생긴다해서 痘院에 가보니 무사마귀를 쥐어 뜯어냈다.

(4) 처방 : 腎氣湯, 茄桂朮甘湯

(5) 고찰 : 눈은 精氣의 Memory¹⁹⁾이다. 눈에 異常이 있다는 것은 精氣의 交合²⁰⁾에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精에 異常이 있든지 氣에 異常이 있든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異常이 있든지 精氣의 交合에 異常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눈에 異常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重症 亂視라는 것은 精의 問題中 肝腎의 不足과 精이 濱集되지 못하고 聚어져 물건이 聚어져 보이는 것²¹⁾을 意味한다. 말이 늦었다는 것은 腦髓의 充滿이 늦었다는 것을 걸을 때 까치발로 걸었다는 것은 肝腎의 精血不足을 뜻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腎氣湯을 투여하여 피부의 狀態가 많이 好轉되는 와중에 무사마귀가 갑자기 생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무사마귀는 小兒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疾患으로 水毒性 疾患이다. 膀胱이 나쁜 경우에는 五苓散等으로 치료를 하고 痰飲으로 인한 경우에는 茄桂朮甘湯을 쓰면 잘 치료된다. 上記의 환자는 눈 밑이 거무스름한 痰飲의 形象이 뚜렷하였기에 茄桂朮甘湯을 처방하여 잘 치료되었다.

3. 五臟六腑와 關聯된 피부질환

1) 임상사례 6 - 배 ○○, 여자 14세

(1) 초진일 : 2001年 8月 25日

15) 對譯東醫寶鑑, p. 276

16) 芝山先生 臨床特講 I, p. 372

17) 芝山先生 臨床特講 II, p. 113

18) 芝山先生 臨床特講 IV, p. 314

19) 芝山先生 臨床特講 IV, p. 216

20) 芝山先生 臨床特講 V, p. 112

21) 對譯東醫寶鑑, p. 558

喉嚨云、目之系、上出於腦、後出於項中、邪中其病、精散則視歧、故見兩物、本事

(2) 形象 : 黑, 膽體

(3) 脈 72 / 64

(4) 증상 : 팔꿈치 발바닥이 갈라지고 깍질이 벗겨져, 피부과에서 아토피성피부염이라고 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없었다. 악어 살처럼 피부가 거칠다. 眼鏡(近視, 亂視). 或 뼈골이 아프다고 한다.

(5) 처방 : 腎氣湯

(6) 經過 및 고찰 : 上記의 환자는 마르고 검은 체질의 환자로 主증상은 발바닥이 갈라지고 벗겨지는 문제로 來院하였다. 瘦黑하다는 것은 血虛나 陰虛 或은 腎臟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亂視眼鏡을 着用하였으며 간혹 뼈골이 아픈 증상 即 骨髓痛이 있었다. 以上的 理由로 이 환자가 발바닥이 갈라지는 原인은 腎水不足이라고 判斷하였다. 그래서 환자에게 肺의 根源을 滋養하고 腎水를 生하게 해주는 腎氣湯²²⁾을 20貼을 투여했는데 再診하였을 때에는 脈이 72/72로 同脉²³⁾이 되었으며 발바닥이 갈라지는 증상에 뚜렷한 好轉이 있어 다시 20貼을 더 투여하였다.

2) 임상사례 7 - 이 ○○, 남자 13세

(1) 초진일 : 1999年 11月 11日

(2) 形象 : 피부色 黑, 面赤, 머리카락 굵다.

(3) 脈 66 / 66

(4) 증상 : 아토피성피부염, 밤이면 더워지고 피부가 가려워 많이 굵어 피부가 거칠어지고 낙설처럼 변했다. 처음에는 발등에서 시작되었다. 眼鏡(近視甚, 亂視). 怯이 많다. 목에 가래가 낸다.

(5) 처방 : 腎氣丸, 山藥爲君으로 함.

(6) 經過 및 고찰 : 上記의 환자는 피부가 검으며 머리카락이 굵은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亂視와 목에 가래가 낸다고 呼訴하였다. 머리카락은 腎臟의 荣華²⁴⁾를 나타내는데 形象醫學에서는 큰 것이 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굵다는 것은 많은 腎水를 必要로 하므로 쉽게 腎水가 不足해진다. 亂視라는 것은 視一物爲兩症으로 原인은 肝腎의 不足²⁵⁾이다. 목에 가래가 낸다는 것은 뼈 속으로 들어가야 할 津液이 痰飲으로 되어 목으로 逆上하는 증상이며 피부는 검은데 얼굴이 붉은 것은 烫이 있다는 證據가 된다. 그래서 治瘧의 聖藥이고 血虛發熱의 神劑²⁶⁾인 腎氣丸에서 피부의 乾澀을 다스리기 위해 山藥을 為君²⁷⁾으로 한 腎氣丸으로 調整하여 투여하였다. 1999년 12월 10일 再診했을 때 脈이 66/66이므로 腎氣丸을 계속 투여하였고 2000년 1월 11일 다시 왔을 때에는 脈이 76/74로 펼어지고 환자는 이 약을 먹으면서 얼굴에 烫이 오르는 증상과 피부의 거친 증상이 많이 好轉

22) 對譯東醫寶鑑, p. 1183

腎氣丸, 治虛勞腎損, 大味地黃元一劑, 加五味子四兩, 乃滋肺之源, 以生腎水也(易老)

23) 芝山先生 臨床特講 III, p. 87

24) 精校 董帝內經素問, p. 39.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25) 對譯東醫寶鑑, p. 558

昏暗不能遠視, 看一成二成三, 屬肝腎虛, 宜腎氣丸(方見虛勞), 地芝丸(方見上)(入門)

26) 對譯東醫寶鑑, p. 1183

水泛爲痰之聖藥, 血虛發熱之神劑, 又能補肝, 盖腎肝之病, 同一治故也(回春)

27) 對譯東醫寶鑑, p. 331

血虛陰衰濕地黃爲君, 精滑山茱萸爲君, 小便或多或少或赤或白茯苓爲君, 小便淋澀澤瀉爲君, 心氣不足牡丹皮爲君, 肝脾乾澀山藥爲君(綱目)

되었는데 3個月分을 복용後 환자의 사정으로 服藥을 中斷하였다.

3) 임상사례 8 - 임 ○○, 여자 9세

(1) 초진일 : 1999年 7月 20日

(2) 形象 : 입술이 얇은 火體, 眉美麗

(3) 증상 : 모 병원에서 아토피성피부염라고 해서 왔는데 겨울이던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거칠거칠하다. 양쪽 엄지발가락바닥이 갈라져 있다. 冷帶下가 있다. 陰部發赤, 따끔따끔 아프다고 한다. 혀가 아프다고 한다.

(4) 처방 : 十味導赤散²⁸⁾

(5) 고찰 : 上記의 환자는 피부의 異常과 엄지발가락의 피부가 벗겨지는 것으로 來院하였는데 火體로 생겼고 心·小腸의 熱로 인한 증상인 陰部와 혀의 증상을 呼訴하였다. 혀는 心臟의 炙²⁹⁾이고 小腸에 熱이 있으면 蓉中痛³⁰⁾이 생기므로 心, 小腸의 熱을除去하는 十味導赤散 20貼을 투여하였는데 上記의 증상의 거의消失되었다.

4) 임상사례 9 - 전 ○○, 남자 5세

(1) 초진일 : 2001年 7月 26日

(2) 形色 : 地圖舌

(3) 증상 : 다리 쪽으로 胎熱이甚하다. 피부가 거칠다.

(4) 처방 : 十味導赤散

(5) 고찰 : 舌은 心臟의 炙이고 地圖舌이 있다는 것은 心臟에 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아이는 피부가 거칠고 다리 쪽으로 더 심하다고 呼訴하였는데 大小便에 문제를 오면 下肢에 문제가 생긴다. 고로 心臟의 實熱로 인해 피부에 異常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十味導赤散을 투여하여 치료를 하였다.

5) 임상사례 10 - 박 ○○, 여자 25세

(1) 초진일 : 2001年 1月 15日

(2) 形象 : 口突出, 膺體, 乳房小

(3) 脈 84 / 74

(4) 증상 : 목 손목 손등 얼굴이 가려워 긁으며 심하면 진물이 난다. 머리에 비듬이 많다. 痰飲의 形象과 증상. 冷帶下多. 입술이 튼다. 손발이 차다.

(5) 처방 : 溫經湯³¹⁾

(6) 고찰 : 여자는 14세가 되면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여 月事가始作된다³²⁾. 奇經八脈中 衝脈은 足陽明胃經을 끼고 循行하여³³⁾ 血海³⁴⁾가 된다. 또한 衝脈과 任脈이 다 胞中으로부터 일어나서 위로 뱃속을 돌아서 經絡의 바다가 된다³⁵⁾. 乳房은 足陽

28) 對譯東醫寶鑑, p. 313

29) 精校 黃帝內經素問, p. 24

精校 黃帝內經靈樞, p. 115

對譯東醫寶鑑, p. 600

內經曰, 心在竅爲舌, 又曰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舌者, 心之苗也<入門>

30) 對譯東醫寶鑑, p. 343

小腸有氣, 則小腹痛, 小腸有血, 則小便澀, 小腸有熱, 則 蓉中痛<入門>

31) 對譯東醫寶鑑, p. 360

精校 黃帝內經素問, p. 11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32) 對譯東醫寶鑑, p. 2073

衝脈, 行身之前, 挟任脈兩傍, 東垣云, 衝脈起於會陰(穴名), 根於氣街, 為二道入腹中央, 挟肺兩傍, 上行附足陽明之脉, 至胸中而散<綱目>

33) 對譯東醫寶鑑, p. 357. 衝脈爲血海, 諸經朝夕

明胃經이 지나가는 부위³⁶⁾이다. 그래서 衝脈과 胃經이 좋아야 乳房이 發達하고 젖이 잘 나온다.³⁷⁾ 피부는 十二經脈의 部³⁸⁾가 된다. 任脈에 痘이 남자는 七疽이 생기고 여자는 帶下와 痘聚가 된다³⁹⁾고 하였다. 上記의 환자는 목과 손부위로 피부의 異常을 呼訴하면서 冷帶下와 입술이 트는 증상을 呼訴하였다. 여기에서 冷帶下가 있다는 것은 任脈에 痘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形象에서는 乳房이 작아 衝脈과 胃經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衝脈과 任脈은 經絡의 바다가 되고 피부는 十二經脈의 部가 되므로 冷帶下가 많다는 것과 乳房이 작다는 것이 피부의 異常과 관련이 있다. 이에 衝任脈의 虛損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溫經湯을 투여하였는데 再診時에는 脈이 90/80으로 세 번째 診療時에는 72/76로 脈의 뚜렷한 변호가 나타나면서 피부의 異常이 개선되었다.

6) 임상사례 11 - 이 ○○, 남자 18세

(1) 초진일 : 2000年 1月 19日

(2) 形象 : 膺體, 鼻孔이 드러남

(3) 脈 92 / 90

(4) 증상 : 3個月 전부터 입 주위 눈꺼풀 주위로 붉은 色으로 뻔 무사마귀 같은 것이 생겨남. 左下腹痛, 右頭痛, 陰囊偏. 등이 따갑고 가렵다, 痘勞

(5) 처방 : 五苓散⁴⁰⁾

(6) 고찰 : 무사마귀는 水毒性 疾患이다. 씹어먹는 것은 陰氣를 濟養하고 마시는 것은 吸收되어 陽氣를 濟養⁴¹⁾하여야 한다. 이 아이의 경우는 膀胱이 나빠서 陽氣의 運行이 좋지 못하여 등이 따갑고 가려우며 痘勞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陽氣의 運行이 좋지 못하면 마시는 물의 吸收가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무사마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膀胱의 主藥⁴²⁾인 五苓散을 투여하여 깨끗이 치료되었다.

4. 外形과 관련된 피부질환

1) 임상사례 12 - 권 ○○, 여자 20세

(1) 초진일 : 2001年 8月 24日

(2) 形象 : 膺體, 가름

(3) 脈 92 / 92

(4) 증상 : 5세 때부터 눈꺼풀의 안 쪽으로 다래끼처럼 좁쌀 같은 것이 생겨 눈을 뜨고 감기가 불편, 최근까지 모 병원에서 20

35) 精校 黃帝內經靈樞, p. 282

對譯東醫寶鑑, p. 357

衝脉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腹裏, 為經絡之海(靈樞·五音五味)

36) 對譯東醫寶鑑, p. 687. 乳房, 陽明所經, 乳頭, 厥陰所屬<丹心>

37) 對譯東醫寶鑑, p. 686

蓋婦人之乳, 資於衝脉與胃經通故也, 大抵婦人素有疾, 在衝任經者, 乳汁少而色黃, 所生之兒, 体弱多病<良方>

38) 精校 黃帝內經素問, p. 198

對譯東醫寶鑑, p. 727. 凡十二經絡者, 皮之部也

39) 精校 黃帝內經素問, p. 209

任脈爲病, 陰자內結七疁, 여자 帶下 痘聚.

40) 對譯東醫寶鑑, p. 1038

41) 對譯東醫寶鑑, p. 1127

飲養陽氣, 食養陰氣, 食飲無過, 則入於口達於脾胃, 入於肺, 藏於心肺, 氣味相承, 陰陽和調, 神乃自生, 蓋精順五氣, 以爲靈, 若食氣相惡, 則傷其精神, 受五味以成體, 若食味不調, 則傷其形也<入門>

42) 對譯東醫寶鑑, p. 351. 五苓散, 膀胱主藥也

여 차례의 手術을 反復. 便秘傾向. 가슴이 답답하다. 겨울이면 얼굴에 마른버짐이 생긴다.

(5) 처방 : 消毒飲⁴³⁾

(6) 고찰 : 上記의 환자는 눈꺼풀의 안쪽으로 졸쌀 같은 것이 생겨 커지면 다래끼를 앓는 것처럼 보여 痘院에서 째는 手術을 20餘年나 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였다. 手術을 反覆하다보니 手術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뭔가 다른 根本的인 치료法이 있을 것 같아 韓醫院을 찾아 왔다고 한다. 이는 外障中 痘生風癆에 屬하는 疾患으로 눈은 肝의 구멍⁴⁴⁾이며 大便은 便秘傾向을 띠면서 시원하게 본적이 없다하여 肝에 癥血⁴⁵⁾이 쌓여 생기는 것으로 보고 消毒飲을 투여하였다. 환자는 藥을 복용하고 大便을 시원하게 보기 시작하더니 원쪽 윗 눈꺼풀 안쪽으로 생겼던 것이 없어지며 다시 발생할 時期가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매우 만족해했다.

2) 임상사례 13 - 최 ○○, 남자 58세

(1) 초진일 : 2001年 9月 4日

(2) 形象 : 陽明形, 骨大

(3) 脈 72 / 76

(4) 증상 : 언제부터인가 사타구니로 땀이 차며 가려워지더니 97년부터 허벅지 엉덩이 아랫배로 붉게 두드러기처럼 돋아나면서 가려워, 초기에는 붉은 色의 조그마한 것이 솟아나 옆의 것과 이어지면서 커져 모 병원 診察을 받아보니 장미비강진이라고 診斷받았다. 前부터 肛門부위 가려워서 간혹 藥 복용中. 前에는 입이 잘 헐고 生殖器 주위에 물집이 잘 생겼다.

(5) 처방 : 活血驅風散⁴⁶⁾

(6) 고찰 : 陽明形은 多氣多血하여 热體에 속하고 이 热로 인하여 瘰癩이 잘 발생하는 체질이다. 陰囊의 주위로 발생하는 瘰을 특히 腎臟風癩이라고 하는데 精血의 부족과 風冷의 便乘이 主된 原因⁴⁷⁾으로 되어 있다. 이 환자는 장미비강진이라고 진단을 받고 왔던 환자로 발생하는 부위로 봤을 때 腎臟風癩이 발생하는 부위이고 뼈가 굵어 骨髓가 不足해지기 쉬운 체질이며 陽明形으로 热體이고 風이 잘 動할 수 있는 체질이었다. 그리하여 活血驅風散 20貼을 투여하였는데 藥을 복용하는 中에 피부에 나왔던 것은 들어가고 더 이상 새로 나오지 않았으며 맥도 68/64로 변호가 뚜렷하였다. 그래서 다시 20貼을 더 투여하였다.

5. 維病과 關聯된 피부질환

1) 임상사례 14 - 서 ○○, 여자 25세

(1) 초진일 : 2001年 8月 13日

(2) 形象 : 脍體, 털이 많다.

(3) 脈 76 / 72

(4) 증상 : 어릴 때부터 팔 다리 등에 검은 점이 생기더니 99년 너무 소화가 안되고 痛症이 심하여 모 병원에서 胃潰瘍이라는 診斷을 받고 1999년 胃를 2/3절제하는 手術後 더욱 심해지면서

43) 對譯東醫寶鑑, p. 537

44) 精校 黃帝內經素問, p. 24. 在竇爲目在味爲酸在志爲怒.

45) 對譯東醫寶鑑, p. 537

兩臉上下, 初生如粟米大, 漸大如米粒, 或赤或白, 不甚疼痛, 此肝壅瘀血所成, 宜服消毒飲(得效)

46) 對譯東醫寶鑑, p. 820

47) 對譯東醫寶鑑, p. 820

사마귀와 같은 것이 생겨 차츰 그 숫자가 늘어난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이 생긴다. 본래 소화가 안되어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99년 十二支腸潰瘍, 胃가 좁아져 소화가 안 된다고 胃2/3를 切除하였다. 子宮에서 혹을 除去. 貧血이 甚하다. 痰飲의 形象과 증상.

(5) 처방 : 蕁苓白朮散⁴⁸⁾

(6) 고찰 : 胃는 水穀과 氣血의 바다⁴⁹⁾이다. 이런 胃를 1/3만 남기고 除去했다는 것은 그릇이 깨진 것이다. 환자가 피부의 異常을 呼訴한 부위는 주로 팔다리였는데 이곳은 脾胃가 主管하는 곳이라 胃를 手術한 것과 피부의 異常과는 聯關이 있다. 潰瘍이라는 흄을 없앴는지는 모르지만 그릇을 깨뜨리고 팔다리로 사마귀 같은 것이 생기는 흄을 또 하나 만들었다. 이 환자에게서도 胃와 子宮의 共變性⁵⁰⁾을 볼 수 있는데 오래도록 胃가 좋지 못하다보니 子宮도 나빠져 혹이 생긴 것이다. 胃를 절제하여 그릇이 깨어진 狀態이므로 大病後 脾胃를 調理⁵¹⁾해줄 수 있는 藥이 必要하다. 그런데 胃를 手術했으므로 脾胃에 直接作用하는 藥보다는 血을 둑구어서 형틀을 바로잡아주는⁵²⁾⁵³⁾ 蕁苓白朮散을 투여하였다. 환자는 藥을 복용하면서 사마귀와 같이 생기던 것이 차츰 들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두 번째 藥을 지으려 왔을 때는 脈은 그대로였지만 피부에 나타난 이상은 1/3정도만 남아 있었다. 脈에는 변호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릇이 깨졌다라는 것을 回復하는데는 쉽지 않다는 것을 暗示한다고 볼 수 있다.

3) 임상사례 15 - 김 ○○, 여자 16세

(1) 초진일 : 2001年 6月 16日

(2) 形象 : 面浮澤, 膀胱體.

(3) 脈 124 / 124

(4) 증상 : 2000년부터 온몸의 피부에 붉은 색 丘疹이 생겨나더니 점차 變하여 丘疹은 생기지 않은데 검은 색으로 變하여 얼룩덜룩한 균복을 입은 것같이 피부색이 變해 병원 4군데를 다녀보았는데 아무런 效果가 없다. 잘 滯한다. 滯하면 어지럽고 어떨 때는 點이 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 갑기증세가 늘 따라다녀 콧물이 나오고 추위를 많이 탄다. 몸이 무겁고 잘 붓는다. 痰飲의 形象과 증상.

(5) 처방 : 人蔘養胃湯⁵⁴⁾

(6) 고찰 : 脈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外感⁵⁵⁾이거나 肝腎의 用事⁵⁶⁾가 不足한 것이다. 고로 外感인 경우에는 발산시켜서 낌겨주어야 하고 肝腎의 用事が 不足한 경우에는 補陰⁵⁷⁾을 해 주어 脈을 脾胃의 階位로 끌어 내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환자는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겨 얼룩덜룩하게 되어있지만 얼굴이 浮澤하고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안되고 잘 부으며 갑기증세가 자주 나타

48) 對譯東醫寶鑑, p. 1158

49) 精校 黃帝內經靈樞, p. 261. 胃者, 水穀氣血之海也

5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p. 17

51) 對譯東醫寶鑑, p. 1158

參苓白朮散, 治內傷, 脾胃虛弱, 飲食不進, 或吐瀉, 凡大病後, 調助脾胃, 此藥極妙

5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p. 198

5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p. 202

54) 對譯東醫寶鑑, p. 276

5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p. 7

5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p. 117

5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p. 278

난다고 하여 傷寒 險症에 쓰고 濕을 除去하며 脾胃를 조리할 수 있는 人蔘養胃湯을 투여하였다. 환자는 20貼을 복용하고 다시 진찰을 받을 때는 80/76 脈이 현저하게 좋아졌고 피부의 상태는 약간 호전되었으며 여타의 呼訴하던 증상들은 거의 소실되었다. 다시 같은 처방을 내렸는데 3번째 진찰을 받을 때는 脉은 72/68로 脾-小腸의 位階로 떨어졌으며 피부의 검은 반점이 많이 벗겨져 만족해하는 눈치였으며 완전히 고치겠다하여 다시 같은 처방을 하였다.

4) 임상사례 16 - 과 ○○, 여자 38세

(1) 초진일 : 2001年 5月 29日

(2) 形象 : 鼻 ↓

(3) 脈 64 / 64

(4) 증상 : 前에 목 측면으로 淋巴腺 結核을 앓아 모 병원에서 手術을 하였다. 요즘에 다시 右側 목에 동우리가 생겨 아프다. 속 끓는 일이 많다. 生理量이 적고 검붉다. 가슴이 묵직하게 아프다.

(5) 처방 : 桔子淸肝湯⁵⁸⁾

(6) 고찰 : 목의 측면은 足少陽膽經이 지나는 부위이고 肝과 膽은 表裏를 이룬다. 환자는 전에도 목의 측면으로 淋巴腺結核을 앓아 手術을 하였지만 原인은 除去되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속 끓는 일이 다시 右側 목에 結核이 생겨 痛症을 呼訴하였다. 목의 痘은 大火에 屬⁵⁹⁾한다. 이에 肝膽의 火를 滌하여⁶⁰⁾ 주는 桔子淸肝湯을 투여하여 좋아졌으나 脉은 64/64로 변호가 없었으나 다시 그대로 투여하였다.

5) 임상사례 17 - 박 ○○, 남자 71세

(1) 초진일 : 2001年 10月 17日

(2) 形象 : 膽體

(3) 증상 : 糖尿10년째이다. 2001년 9월 30일부터 갑자기 左側 발등에 고름이 생기면서 헐어 마산의 모 병원에 가보니 다리를 절단을 해야한다, 이식수술을 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4) 처방 : 仙方活命飲⁶¹⁾ 金銀花爲君 大黃 三錢, 加味十全湯⁶²⁾

十全大補湯⁶³⁾加 麥門冬 · 五味子 各一錢

(5) 고찰 : 上記의 환자는 10년 동안 糖尿를 앓고 있는 환자로 2001년 9월 30일부터 갑자기 左側 발등에 헐고 고름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아물지 않고 점점 더 커져 痘院에서는 다리를 絶斷을 해야한다고 하여 직접 오지는 못하고 아들이 대신 와서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消渴이 傳變되는 경우를 보면 消渴病이 오래되면 瘰疽나 水病 或은 失明으로 傳變⁶⁴⁾이 된다고 하였다. 이 환자는 消渴이 오래되어 瘰疽를 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때는 消渴보다 瘰疽의 範疇에서 치료를 해야 하며 瘰疽의 초기에 內毒을 消導하는 藥인 仙方活命飲을 四肢로

58) 對譯東醫寶鑑, p. 1476

59) 對譯東醫寶鑑, p. 634

60) 對譯東醫寶鑑, p. 1475

膽與肝合, 且主筋病, 則筋累累如貴珠, 寒熱煩絶, 乃肝氣動, 而爲病也, 當淸肝火爲主, 宜淸肝益榮湯(方見入門), 柴胡淸肝湯(方見癰疽), 桔子淸肝湯(入門)

61) 對譯東醫寶鑑, p. 1416

62) 對譯東醫寶鑑, p. 1426

63) 對譯東醫寶鑑, p. 1176

64) 對譯東醫寶鑑, p. 1339.

消渴久病, 變成發癰疽, 或成水病, 或雙目失明(類聚)

引經하기 위해 金銀花를 爲君⁶⁵⁾으로 하여 20貼을 투여하였으나 뚜렷한 好轉을 안보여 托裏法 即 排膿生肌⁶⁶⁾하는 加味十全湯 20貼을 투여하자 헐었던 부위가 아물어들기 시작하여 환자의 保護者도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다시 20貼을 투여하여 많이 아물기는 하였는데 헐었던 부위에 痛症이 생겨 瘰疽의 作痛으로 보고 十全大補湯에 五味子 麥門冬을 加⁶⁷⁾하여 투여하였다.

결 론

질병의 발생은 先天的 흡이 있는 데다 後天의 生活의 法道를 지키지 않아서 주로 발생한다. 다른 疾病과 같이 피부病을 치료하는 데도 역시 정해진 처방이 없고 환자의 形色脈症에 따라 치료方法이 多樣하게 나온다. 形象醫學에서는 形色脈症의 一을 求하지만 어떤 때는 形을, 色을, 脈을, 증상을 爲主로 할 때도 있다. 위의 임상사례들은 이와 같은 의도에서 피부질환을接近하고 치료하여 효과를 본 사례들이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形象醫學의 特징을 要약할 수 있다.

氣科의 경우는 氣의 鬱滯로 인하여 피부에 異常이 나타나므로 鬱滯된 기를 풀어주어야 피부의 異常을 치료할 수 있다. 추위지면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우 外感氣虛로 自汗이 있으면 黃芪建中湯으로 잘 치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痰飲은 精氣神血의 矛盾으로 나타나며 痰飲의 形象과 증상이 있는 사람이 피부질환이 있을 경우에 痰飲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피부질환을 다스릴 수 있었다. 臟腑와 관련된 피부질환은 腎精不足과 膀胱漏泄, 心實과 小腸熱, 衡任脈의 虛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타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어 사례를 들지는 못했다. 특히 腎精不足으로 인한 피부질환은 腎과 관련된 物類의 特徵(面黑色, 頸骨大者, 耳의 好惡, 毛髮이 굽은 자 등등)이 확연한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었고 火體나 鳥類는 心實이나 小腸熱로 인하여 피부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外形은 經絡에 의해 臟腑와 연결되는데 臟腑氣血의 不調和로 피부에 질환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肝의 瘰疽과 肝膽의 火로 인한 것과 腎虛에 風濕을 겸했을 나타났다. 雜病은 精氣神血, 臟腑, 經絡 등 인체의 모든 組織과 內外與件에 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므로 虛勞나 瘡病으로 인한 피부질환은 難治가 많다. 內傷인 경우에는 脾胃와 관련되어 全身의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四肢에 집중되는 特徵이 있었다. 또 消渴로 인한 瘰疽의 경우는 좀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지만 오랜 痘으로 排膿生肌의 기능이 떨어져 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형상 진단을 통하여 피부질환에 접근하면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치험사례와 연구를 要한다.

65) 對譯東醫寶鑑, p. 1416

如在背, 亡角刺爲君, 在腹白芷爲君, 在四肢金銀花爲君(入門)

66) 對譯東醫寶鑑, p. 1426

蓋托裏, 則氣血壯, 而脾胃盛, 膏穀自排, 毒氣自解, 死肉自去, 新肉自生, 瘰口自斂矣(入門)

67) 對譯東醫寶鑑, p. 1453

驗血既泄, 腫痛尤甚, 人參黃芪湯, 或 十全大補湯(方見虛門), 加麥門冬, 五味子(回春)

참고문헌

1. 大韓形象醫學會, 大韓形象醫學會誌 vol.2 No.1, 서울, 2001.
2. 東醫寶鑑國譯委員會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범인문화사, 1999.
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연구院出版部, 1985.
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연구院出版部, 1985.
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 I, 芝山出版社, 서울, 1996.
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 II, 芝山出版社, 서울, 1997.
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 III, 芝山出版社, 서울, 1997.
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9.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0.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